

지역 소식통

부안군, 2023 교육훈련사업 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

부안군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란)는 농촌진흥청 주관 2023년 교육훈련사업 종합평가에서 농업인 교육 분야 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시상금 200만원과 함께 큰 영예를 안았다고 밝혔다. 우수 지방농촌진흥기관 평가는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대상으로 농촌 지도사업 혁신전략 추진실적 등 9개 지표에 대한 농촌 진흥사업 추진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부안군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인 교육 분야 최우수 기관상으로 현장 위주 실습 교육 등 내실 있고 체계적인 학습활동을 운영하는 점, 전문 강사의 직무별 강의로 수강생의 높은 참여율을 이끌어 낸 점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주요사업으로는 미래 지역농업을 유도할 전문 농업인 육성을 위한 다양한 품목 교육을 추진하였고, 농가 경쟁력 향상을 위해 전문농업기술교육, 품목별 단기교육, 농업인 대학, 새해영농실용교육, 귀농귀촌교육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군 성내면, 제설 봉사단 발대식 가져

고창군 성내면(면장 고현규)이 지난 12일 행정복지센터에서 동절기 설해를 대비하여 마을 주민으로 구성된 제설봉사단(주민 18명) 발대식을 가졌다. 성내면 제설봉사단은 대설주의보 등 비상상황 발생 시에 특히 강설에 취약한 집중 제설구역과 마을 안길 등에 집중적으로 제설작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제설봉사단원들에게 작업구역을 안내하고 제설장비를 직접 점검했다. 특히 제설봉사단 활동에 대해 함께 의견을 나누며 서로 간의 봉사 참여의식을 더욱 높였다. 고만군 제설 봉사단원은 "오즈 재난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가족과 이웃들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고 주민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제설봉사단으로서 제설작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 고창, 고병원성 시총력 대응

## 심덕섭 군수 "지역내 가금농가, AI 차단 방역 철저 이행" 내년 3월까지 저수지 인근 3곳 통제초소 운영, 주변 소독

심덕섭 고창군수가 전복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관련, "지역내 가금농가와 함께 AI차단방역에 철저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13일 심덕섭 군수는 이날 오후 김관영 도지사가 주재한 고병원성 AI 확산 방지 재대본 영상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현재 고창군 가금농가에서 AI 의심신고는 없었으며, 전화 예찰 및 오리 농가 일제 정밀검사 결과에서도 이상 소견은 보고되지 않고 있다.

앞서 고창군은 지난 1일 전남 고흥군 소재 육용오리농가에서 고병원성 AI 최초 발생 이후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 단계로 올리고 총력 대응해 오고 있다.

특히 고창의 대표적인 철새도래지인 '돌림저수지' 차단방역에 집중하고 있다. 내년 3월까지 저수지 인근 3곳의 통제초소가 운영되고, 소독차원 3대(광역방제기 1, 1톤 방제기 1, 살수차 1)를 동원해 주요 진출입로와 사육농장 주변이 매일 소독중이다.

이외에도 고창전체에 가금 농가를 대상으로 전담 공무원 63명을 지정해 매일 전화 예찰, 축사 내·외부 소독 등 방역 활동을 지도하여 농장별 방역 수준을 강화하고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창 주변지역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잇따라 확인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축사 외부는 모두 오염지역이라고 보고 축사 내외부 소독, 외부 차량과 사람 출입 통제, 가금 방사 금지, 야생 조류 접근 방지대책을 철저히 이행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가금 농가에서도 매일 의심축 여부를 확인하고 의심 증상이 보이면 신속하게 방역 당국에 신고해 달라"고 덧붙였다.

/고창=김영식 기자

# 부안, 어업인 유류 구입비 지원

## 이달 중순까지 지역내 460여가 대상, 평균 3백만원씩 지급

부안군은 지역내 460여가 대상으로 평균 300만원씩(최대 2천만원) 총 14억2,000만원의 어업용면세유 구입비를 12월 중순까지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어업용면세유 구입비 지급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유류가격이 급상승해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어업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것으로 적합한 어업인·허가를 취득한 어업경영체로 어선의 선적항이나 양식장 소재지가 부안군으로 되어 있고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어업용 면세유를 사용한 어가가 지급대상이다.

군은 수협중앙회로부터 어업용면세유 공급실적 자료를 받아 자격요건 검증 절차를 모두 마치고 지급대상자를 확정, 지난 8일 3월부터 6월까지 사용

분에 대해 1차로 6억원을 지급했으며 7월부터 10월까지 사용분에 대해서는 2차로 8억원을 지급 완료한다는 계획으로 지급금액은 어업용면세유 인상액의 50%수준이며 어가당 평균 300만원씩이나 사용량에 따라 최대 2,000만원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또한, 군은 지급대상자의 편의제고를 위해 군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가까운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을 하도록 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유가 상승에 따라 힘들어하는 어민분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어업용면세유 구입비를 지원한다"고 하면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어가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생업에 전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 고창군·제주시 농촌지도자, 농특산물 교류 판매 행사

## 지역 농특산물 홍보 판매 촉진 및 교류 활성화 도모

고창군 농촌지도자연합회(회장 최중업)가 제주시 농촌지도자연합회와 교류활동을 위해 지난 12일 농특산물 판매 행사(2차)를 진행했다.

이번 교류행사는 지역 농특산물 소비 확대를 위한 것으로 제주시연합회는 고창 쌀 4톤을, 고창군연합회는 제주감귤 3톤을 서로 교환해 회원들을 대상으로 판매했다.

앞서 고창군-제주시 농촌지도자연합회는 지난해 10월25일 고창군농업기술센터에서 자매결연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상호 지역의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 촉진 △선진농업 기술교류 및 우량종자 자율교환 △조식화합 및 영농정보 공유 교류행사 등 다양한 분야의 상호 협력을 다짐했으며 지난



고창군 농촌지도자연합회가 제주시 농촌지도자연합회와 교류활동을 위해 지난 12일 농특산물 판매 행사(2차)를 진행했다.

10월 27일에는 상호우호교류 및 지역 상생발전을 기원하는 고향사랑 기부

금을 각각 150만원씩 양 지역에 상호 기부한 바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 정읍시, 샘골터널 라디오 재방송 설비 설치

## 라디오, DMB 청취·시청

정읍시가 그동안 라디오 난청 지대였던 샘골터널 내에 라디오재방송 설비를 설치해 문제점을 해소했다고 13일 밝혔다.

라디오재방송 설비는 터널 안에서 라디오나 DMB를 청취·시청을 돕는 장비다.

터널 내 라디오재방송설비는 천재지변이나 전쟁과 같은 재난 상황 시 재난방송이나 민방위 경보를 듣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다.

그간 도로를 주행하는 운전자들 또한 "터널만 진입하면 라디오 수신이 끊기면서 잡음이 생겨 위험 사항 발생 시에는 재난방송을 듣지 못해 위험할 거 같다"는 의견을 제시해왔다.

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0월부터 라디오재방송 설비 공사를 실시해 지난 4일 공사를 완료했다.

이학수 시장은 "터널은 폐쇄적인 구조로 탈출하기 어려워 재난 발생 시



재난방송 청취가 그 어느 곳보다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 정읍시, 2023년 도로정비 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정읍시가 전북도가 주관하는 '2023년 도로정비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도는 지난 10월 30일부터 11월 3일까지 도내 14개 시·군 도로 6869km를 대상으로 도로정비 실태에 대한 점검과 평가를 진행했다.

도로정비 평가는 도로의 기능유지와 교통안전, 이용자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도로유지관리 업무를 활성화하기 위해 평가를 진행해오고 있다.

주요 평가목표는 도로정비 상태, 예산집행, 안전교육, 사고발생 건수 등이 다.

시는 시설물을 보수하는 것은 물론 불법 도로점용물 정비 등으로 쾌적하

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유지했다. 이와 함께 파손된 포장도로의 신속한 포장 복구와 상시 현장 출동체계 구축으로 도로이용자 불편해소에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체계적인 도로정비 계획을 수립해 도로 포트홀 등을 수시로 정비하고 도로와 각종 시설물의 위험요인을 현장에서 파악해 신속한 보수를 펼쳤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학수 시장은 "도로환경은 운전자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쾌적하게 유지해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도로정비와 점검을 통해 안전한 도로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 정읍시농기센터, '우리떡 지도사' 자격증 과정 운영

정읍시가 농업인과 지역주민의 역량 강화와 우리 떡의 전통과 맛을 계승하기 위해 나섰다.

시 농업기술센터는 2023년 농촌생활문화 기술교육으로 '우리 떡 지도사 자격증' 과정을 본격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교육은 신청을 통해 모집한 19명을 대상으로 13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총 9회에 걸쳐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농촌자원 활용 기술을 보유한 전문인을 양성해 지역사회 활력을 도모하고, 쌀 소비 촉진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농업·농촌의 부가가치 향상을 꾀한다는 계획이다.

교육 내용은 국가자격증 '떡 제조기능사' 자격 취득을 목적으로 떡에 대

한 이론과 실기떡, 떡케이크, 영양떡 등 쌀을 활용한 떡 만들기 실습으로 진행된다.

해당 교육과정을 마친 수료생들은 국가자격증인 '떡 제조기능사'와 민간 자격증인 '우리 떡 지도사 자격증' 시험에 응시할 계획이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앞으로도 농업·농촌의 부가가치 향상을 꾀하고, 쌀 소비 촉진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지역 리더를 양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